

2023-2024

한눈에 보는 대만

TAIWAN
at a Glance



TAIWAN

중화민국(대만) 외교부 발행

이 부분은 북마크로 활용하세요.



2023-2024

한눈에 보는 대만

TAIWAN at a Glance



중화민국(대만) 외교부 발행

2023-2024

한눈에 보는 대만

중화민국(대만) 외교부 발행

케타가란대로 2, 타이베이 10048, 대만, 중화민국

<http://www.mofa.gov.tw>

편집: 신시아 형, 토리 저바이스, 클레어 리어, 짐 황

표지사진: 예밍위안

레이아웃 및 그래픽 디자인: 린원치예

유통: 대만 파노라마 매거진

아이구오서로 2, 타이베이 100209, 대만, 중화민국

전화: (+886)-2-2397-0633

<http://www.taiwan-panorama.com>

초판, 2023년 12월

한국어판

번역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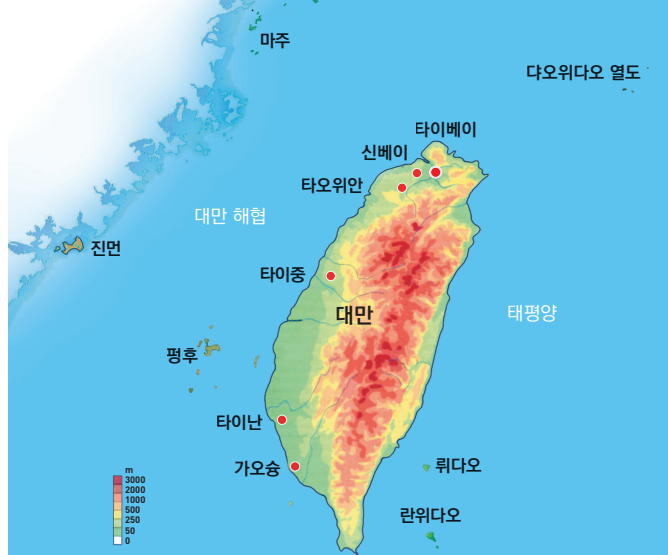
편집 CASA LIBRO, 디자인 HAND, 인쇄 영문화사

모든 권리 보유.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 없이 본서의 일부 또는 전부 복제를 금함.

연락처: 중화민국(대만) 외교부

전화: (+886)-2-3343-2712



대만 개요

공식 국호

중화민국(대만)

국기



국화

매화

국토

(대만 및 부속 도서)

36,197km²

인구

2,330만(2023년 6월)

민족

한족(호클로족, 하카족 및 중국에서 이주한 기타 집단 포함) 95% 이상, 말레이폴리네시아족 2.5%,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신주민 2.5%

정부

다수정당 민주주의

총통

차이잉원(蔡英文)

수도

타이베이

직할시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통화

신 대만 달러(NT\$ 또는 TWD)

언어

표준 중국어(만다린어), 호클로어(대만어), 하카어(객가어), 대만 제어

주요 종교

불교, 도교, 일관도, 중국 토속 신앙, 기독교, 이슬람교

(사진_켄트 장)

차례

자연환경 · 8

민족 · 14

역사 · 18

정치 · 30

외교 · 38

양안관계 · 50

경제 · 58

과학기술 · 68

교육 · 76

문화 · 80

대중매체 · 84

관광 · 88



자연환경

주요 정보

대만의 위산(玉山)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대만 국토의 약 20퍼센트는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화민국(대만)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서태평양에 위치하며, 영토는 평후, 진먼, 마주 열도 및 여러 부속 도서를 아우른다. 대만 본섬과 부속 도서의 총 면적은 약 36,197제곱킬로미터다. 네덜란드와 크기는 비슷하나, 인구는 약 2,300만 명으로 전 세계 나라 중 인구 상위 25퍼센트에 속한다. 대만 본섬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대만 북부 신베이시 예류 지질공원의 자연
작용으로 형성된 기암괴석 (사진: 친형하오)

개요



면적:

36,197 km²

대만 본섬 남북 길이: **394** km

대만 본섬 동서 길이: **144** km

농지 면적: **7,900** km²



최고봉:



위산 (3,952m)

18°C

1월

평균 기온
22°C

29°C

7월

자랑한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위산을 포함하여 3,000미터 이상의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맥과 숲이 본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화산, 고원, 해안 평야 및 분지도 있다. 대만의 북동쪽에 위치한 다오위다오 열도 및 남중국해의 동사군도, 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또한 중화민국 영토에 속한다.

아시아 대륙 동부 해안의 난류 이동 경로에 위치한 대만 본섬은 열대에서 온대에 이르는 독특하고 다양한 기후대에 속한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우량 덕분에 거의 모든 종류의 과일 및 채소 재배가 가능한 ‘농업 천국’이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으며, 겨울에는 난터우현의 허환산 기슭에서 설경을 감상할 수

대만 남부 자이현 아리산국가풍경구의 수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미카도평 (사진: 린민슈안)



있고, 불과 200킬로미터 떨어진 온화한 평등현에서는 섬 남단을 따라 펼쳐진 산호초에서 스킨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한편, 평후군도의 주상 현무암, 뤼다오와 구이산다오 해안의 해양 온천 등 부속 도서 또한 독특한 자연 경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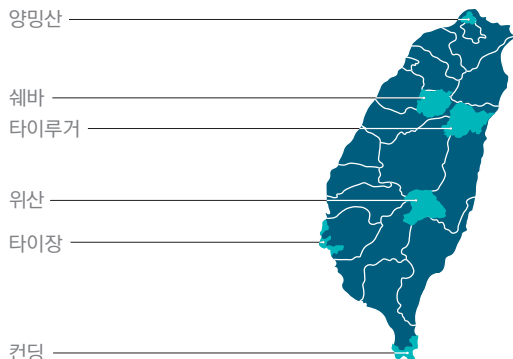
동·식물

열대에서 온대에 이르는 기후와 다채로운 지형은 다양한 동·식물군의 터전이 되어 왔다. 동물군은 대략 포유류 121종, 조류 702종, 파충류 118종, 양서류 43종, 나비 401종 및 어류 2,95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양치식물 791종, 속씨식물 5,645종과 겉씨식물 107종이 식물군을 이루고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부는 9개 국가공원, 1개 국가자연공원, 22개 특별 생태계 자연보호구역, 6개 산림보호구역, 21개 야생동물보호구역 및 39개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를 포함하여 국토 면적의 약 20퍼센트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만의 대표적 어종인 포모산육붕연어는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급격히 낮아져 더 이상 담수와

해수를 오갈 수 없게 되자 대만 중부 고산의 차가운 강 상류에 갇히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어종의 보호를 위해 쉼바국가공원의 다자강 상류에 포모산육붕연어 보호 구역이 만들어졌다.

국가공원



국경절을 기념하여 총통부 앞에서 아미족 춤으로
공연하고 있는 대만 원주민 (사진_총통부 제공)



민족

주요 정보

대만에는 16개의 공인된 원주민이 있다.
대만에는 58만 명이 넘는 신주민이 거주 중이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인구의 95퍼센트 이상이 한족인 대만은 한족 중심 사회로 여겨지지만, 그 유래는 실로 매우 복잡하다. 상호 소통이 불가능한 언어와 다른 관습을 지닌 다양한 집단의 중국 이민자들이 17세기부터 대만으로 잇따라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민족 간 결혼과 표준 중국어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민족 간 구별은

모호해졌다. 대만은 말레이폴리네시아족과 세계 각국의 이민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한족 하위 집단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다. 최근 수년간 주로 결혼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새롭게 유입한 '신주민' 수는 현재 5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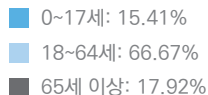
공인된 16개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 대만 인구의 2.5퍼센트를 넘자, 이들의 언어와 문화유산도 주목받고 있다. 대만 원주민 방송국 출범 및 원주민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 간 융합과 교류는 대만이 세계의 다양한 문명을 고유한 방식으로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사회로 변모하도록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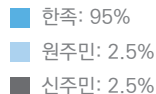
개요

인구: **23,373,283**명(2023년 6월)

인구 구성



민족



출생률(2022년): **5.96**명(인구 1천 명당)

사망률(2022년): **8.89**명(인구 1천 명당)

기대수명(2022년): **79.84**세

남성



여성



대만 남부 타이난에 있는 1665년에 세워진
타이난 공자사원 (사진_팡치아산)



역사

주요 정보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착민들이 대만에 거점을 구축했다.
1940년대 말~1950년대 초, 중화민국 정부를 따라 약 120만 명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주했다.

중화민국은 1912년 중국에서 건국되었다.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이 일본에 대만을 할양하게
되면서 건국 당시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후 1945년부터 대만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 중 대만으로 이전했다. 이후 중화민국이 대만 본섬 및 부속 도서에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대만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부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연혁

다음은 말레이폴리네시아족의 터전이었던 대만의 수천 년 역사 중 약 4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다.

1500년대	대만을 지나 항해하던 유럽 선원들이 대만의 이름을 일라 포르모자(Ilha Formosa), 즉 아름다운 섬으로 기록했다고 일반적으로 전해진다. 이 시기에 꾸준히 일부 중국 상인과 어부가 대만을 찾거나 해적이 출몰했다.
1624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대만 남서부에 거점을 마련했다. 동인도 회사는 원주민의 곡물 재배 관행을 바꾸고 쌀과 설탕 농장에 중국 노동자를 고용했다.
1626	스페인 탐험가들이 대만 북부에 요새를 구축했으나 1642년 네덜란드가 이들을 축출했다.

1662	만주족 명 왕조(1368~1644)의 정복을 피해 대만으로 이주한 정성공 휘하의 명 충신들이 네덜란드인을 몰아내고 통치권을 수립했다.
1683	청 왕조(1644~1912) 군대가 대만 서북부 해안 지역을 정복했다.
1885	대만이 청 제국의 지방으로 선포됐다.
1895	제1차 청일 전쟁(1894~1895) 패배 후, 청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대만에 대한 주권을 일본에 할양함에 따라 일본이 1945년까지 대만을 통치했다.
1911~1912	중국의 혁명 세력이 청 제국을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을 수립했다.
1943	장제스(蔣介石) 중화민국 총통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카이로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및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회담했고, 이후 “...포르모자(대만) 및 페스카도레스(평후군도)를 중화민국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됐다.
1945	중화민국, 영국,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과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중화민국 정부 대표단은
대만 주둔 일본군의 항복을 수락했다.
천이(陳儀) 행정장관은 “중화민국의
행정장관으로서, … 나는 (평후군도를 포함한)
대만의 모든 법적 영토, 국민, 행정, 정치, 경제,
문화 시설 및 자산을 수복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일본 총독에게 송부했다.

1947

1월 1일 중화민국 헌법이 공포됐고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3월부터 수개월간 중국에서 파병된 중화민국
군대가 2·28 사건으로 촉발된 대만 주민들의
대규모 봉기를 진압했다.

1948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와 중국공산당
간 내전이 중국에서 본격화되면서 반란평정시기
임시조항(反亂平定時期 臨時條項)이 제정되어
사실상 헌정이 중단되고 총통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써 시작된 백색테러 시대는 1991년
임시조항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됐다.

1949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이전 후 120만 명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주했다.
10월 25일 구닝터우 전투가 발발했다.
진먼 북서부 해안에서 중화민국 국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 1987년까지 시행됐다.

1952

1951년 유엔을 대표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
중화민국과 일본은 타이베이 영빈관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했다.
해당 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일본은 대만 및
평후군도, 남사군도,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했다.
전쟁의 결과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중국과 일본 간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화됐다.

1954

워싱턴에서 중화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1958

8월 23일 진먼에서 중화민국 수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간 포격전이 발발하여 40일 이상
대치했다.

1966

대만 남부 가오슝에 최초로 수출가공지역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대만은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다른 국가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1968

9년제 의무 교육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9년 이상 의무 교육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는 9개국 미만이었다.

1971

10월 25일 유엔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는
유엔 결의안 2758호를 채택했다.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탈퇴했다.

1979

가오슝 사건 발발 후 가오슝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수감됐다.
이는 결국 1986년 민주진보당(민진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1987

1949년 선포된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신당
창당과 신문 출판에 대한 금지도 해제되면서
민주화가 본격화됐다.

양안 간 인적 교류가 개시됐다.

1991

반란평정시기 임시조항이 폐지됐다.
1991~1992년 입법위원 및 국민대회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여 온전하게 국민에게 대표성을 부여했다.
1991~2005년 7차례 헌법이 개정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했다.

1992

홍콩에서 양안 대표단 간 최초 회담 후 후속
소통과 협상을 통해 다양한 상호 인정과 이해에
도달했다.

1995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28사건 처리 및 보상법이 발효됐다.

1996

최초로 총통 직선을 실시하여 국민당의
리덩후이(李登輝)와 러닝메이트 련잔(連戰)이
54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0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과 위슈롄(呂秀蓮)이
총통 및 부총통으로 당선됐다. 50년이 넘는
국민당 통치가 종식되고 최초로 정당 간 정권
이양이 이뤄졌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2002

3월 1일 군사정책 수립과 지휘 일원화 원칙에
입각한 국방2법이 공식 발효됐다. ‘군의 국가화’를
위해 법률을 정비하여 국방부 산하 기관이
신설됐다.

2003

입법원은 국민투표 법안을 통과하여 지방 또는
국가의 중대사에 국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2004

제3대 총통 직선과 함께 제1차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천수이볜과 린슈롄이 재선됐다.

2005

입법원이 개헌안을 통과시켜 입법원 의석을 225석에서 절반인 113석으로 감원했다.
단일 선거구, 1인 2표 병립식 혼합선거제를 도입했다.

2008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와 샤오완창(蕭萬長)이 총통 및 부총통으로 당선되어 두 번째 정당 간 정권 이양이 이뤄졌다.

2009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석을 계기로 1971년 유엔 탈퇴 이후 처음으로 유엔 활동에 참여했다.

마 총통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서에 서명했다.

2010

중국과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양안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제도화했다.

2011

중화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했다.

2012

총통 선거에서 재임 중인 마잉주 총통 및 국민당 러닝메이트 우둔이(吳敦義)가 당선됐다.

2013

뉴질랜드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와도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의장국으로 참석했다.

2014

2월 난징에서 대륙위원회 왕위치 주임위원과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장즈전 주임의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양안관계 총책임자 간의 첫 공식 접촉이었다.

해바라기 운동 시위자들이 양안 서비스 무역협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입법원을 점거했다.

9합 1선거로 알려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지방정부 대표 11,130명이 당선됐다.

2015

11월 싱가포르에서 마 총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서명하고 기탁서를 제출했다.

2016

민진당 차이잉원 주석과 학자 천젠런(陳建仁)이 총통 및 부총통으로 당선됐다.

민진당은 113석 중 68석을 확보하여 첫 과반의석을 획득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정부를 대표해 수 세기 동안

고통과 학대를 겪은 원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16개 공인 원주민족 언어의 보존 및 증진을 위해 원주민족언어발전법을 제정했다.

2017

2017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주최했다.

최초의 독자 개발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인 포모사 5호(FORMOSAT-5)를 발사했다.

5월 31일 이행기정의위원회를 설립했다.

2018

1949~1991년 백색테러 기간에 정치적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이어 차이 총통이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2019

동성 혼인을 합법화하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아시아 최초로 LGBT(성소수자) 혼인을 허용했다.

2020

차이잉원과 집권당인 민진당의 러닝메이트 라이칭더(賴清德)가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진당은 과반의석을 유지했다.

2022

1월 1일 국방부는 예비군 활용, 관련 제반 활동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전민방위동원서를 설립했다.

8월 27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거버넌스 및 기반시설 관련 종합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 디지털부가 출범했다.

2024

1월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

주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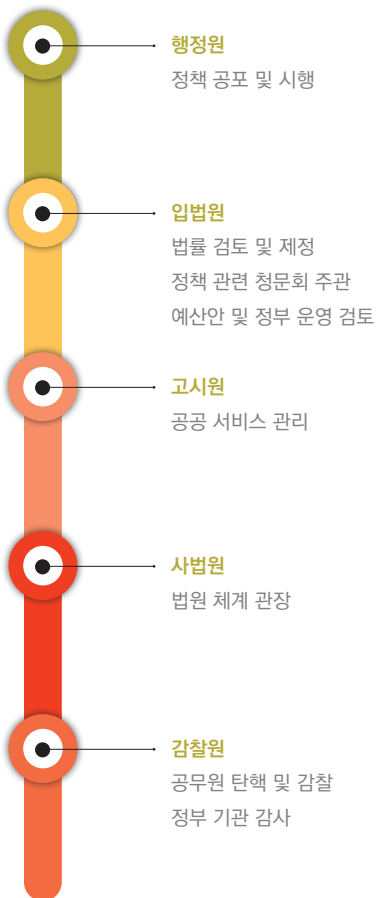
중화민국의 총통 및 부총통은 4년마다 직선제로 선출된다.

입법위원 선거 시 유권자는 소속 지역구 및 전국구에 1표씩 행사한다.

1947년 1월 1일 공포된 중화민국 헌법은 계엄령이 해제된 1987년 이후 비로소 민주적 통치와 법치주의의 근간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 후 시대 상황에 맞추어 1991년, 1992년,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및 2005년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타이베이에 있는 유서 깊은 총통부 건물 (사진_팡치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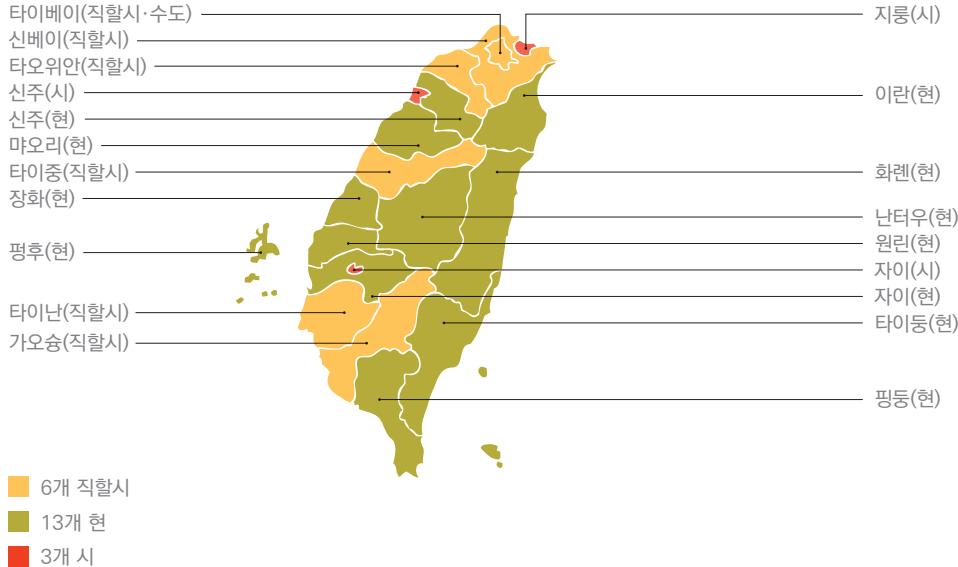


개헌의 주요 성과로, 1991년 이래 정부는 실질적인 통치 지역에만 통치권이 미침을 인정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통과 입법위원은 오직 통치 지역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이들을 대표한다.

2005년 6월 공포된 개정 헌법에 의거, 입법원의 의석수는 225석에서 절반인 113석으로 줄었고, 위원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선거제 하에서 각 선거구는 단 1석을 선출하고, 유권자는 지역구와 전국구에 각 1표를 행사한다. 현재 헌법 개정 비준권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행사한다.

정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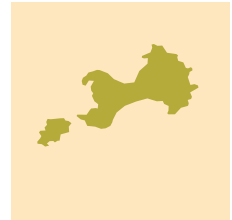
중앙정부는 총통 및 5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정부는 현재 6개 직할시, 13개 현 및 현과 동급의 지방 자치단체인 3개 시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 4년마다 전국의 시와 현에서 동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표가 선거로 선출된다. 현은 198개 현할시·진·향을 관할하며, 직할시 및 자치시에는 6개의 산악지방 원주민 선거구를 포함하여 170개 구가 있다.



렌장(현)



진먼(현)



직할시는 중앙정부 직속의 최상위 행정 주체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직할시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 확대, 기관 추가 설립 및 공무원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순으로 신베이, 타이중, 가오슝, 타이베이, 타오위안, 타이난이 직할시에 해당한다.

총통직 및 총리직

총통과 부총통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제다. 총통은 국가 원수 겸 국군 통수권자이며, 외교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를 비롯하여 4원의 수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총리는 행정원 또는 내각을 이끌고 입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또한 행정원 산하 부처, 위원회, 기관의 장을 신임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행정원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37개 내각급 조직을 30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행정원은 2012년 초 시작된 조직 개편이 종료되면 14개 부처, 9개 위원회, 3개 독립 기관 및 4개 기타 기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헌법에 의거, 총통의 총리 임명 및 총리의 장관 임명은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총통의 감찰원 및 고시원 위원, 사법원 법관 임명에는 입법원의 신임이 필요하다. 입법위원장 혹은 입법원 의장은 입법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정당

정부의 전반적 기능을 관장하는 총통직의 핵심적 역할을 고려하면, 여당은 총통을 배출한 정당을 의미한다.

국민당은 2000년 및 2004년 민진당의 총통 선거 승리 이전에 50년 이상 총통직을 유지했으며, 2008년과 2012년에 재집권했다. 민진당은 2016년과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민주화 이후 세 번째로 권력이 이양되었다. 차기 총통 선거는 2024년 1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2020년 1월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의석 54퍼센트를, 국민당은 의석 34퍼센트를 확보했다. 입법원 의석을 확보한 기타 주요 정당에는 대만민중당과 시대역량당이 있다.

외교

주요 정보

총 172개국이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를
면제하거나 도착비자 또는 전자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대만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 중
미국과 공식으로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중화민국은 자국 국방을 수호하고 외교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주권국이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화
민국은 “친밀한 외교를 증진하고 조약 및 유엔헌장을
존중……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국제 정의를 제창하고
세계 평화 확보”를 목표로 한다. 궁극적 목표는 국가 보전
및 장기적 발전에 유리한 환경 확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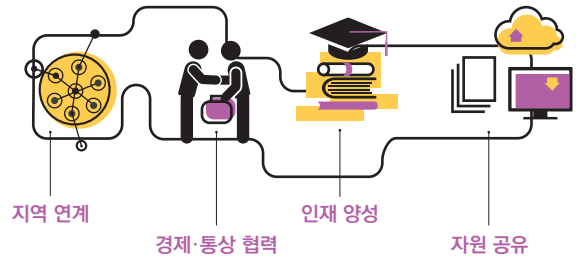


총통부에서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를
환대하는 차이잉원 총통 (사진: 총통부 제공)

정부는 상호 이익을 위한 상호 지원을 목표로 일관된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확고한 외교 정책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외교 동맹국 및 우방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도모한다. 이러한 접근 하에 대만의 외교 업무는 일방적 해외 원조 제공에서 벗어나 쌍방향 대화에 중점을 두고 양자 협력 사업을 통해 산업 및 시장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의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하에 대만은 아세안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 경제·통상 협력, 인재 양성, 자원 공유, 지역 연계 관련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 이익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외교 동맹국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2016년 파라과이와 파나마를, 2017년 온두라스·니카라과·과테말라·엘살바도르·마셜 제도·솔로몬 제도·투발루를, 2018년 에스와티니·파라과이·벨리즈를, 2019년 팔라우·나우루·마셜 제도·아이티·세인트키츠 네비스·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를 순방했다.

2021년 9월 및 12월 차이 총통은 중앙아메리카 독립 200주년 및 중미통합체제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 담화를 발표했다.

차이 총통은 '민주적 동반자와의 회담 및 공동 번영 증진'을 주제로 2023년 3월 29일~4월 7일 동맹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순방했고, 이를 통해 수교국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향한 대만의 의지를 표명했다. 차이 총통은 같은 해 9월 5~8일 에스와티니 독립 55주년, 국왕 음스와티 3세의 55세 생일 및 수교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항구적 우정 기념 및 지속 가능한 협력 증진’을 주제로 에스와티니를 순방했다.

국제적 참여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포함하여 45개 정부 간 기구 및 그 산하 기구의 정회원국이다. 또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중미통합체제SICA 등 28개 정부 간 기구 및 그 산하 기구에 옵서버 또는 기타 지위로 참여하고 있다. 대만의 견실한 자본 시장과 아시아에서의 중추적 위상을 고려하여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중미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2021년 7월 6일 대만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로써 인도 태평양 이외의 지역 통합 관련하여 대만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대만은 국가 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실용적, 전문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류와 모든 인간의 복지 수호 및 기여를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국제형사경찰기구 등 정부 간 기구 및 메커니즘에 유의미한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만은 수교 동맹국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다.

긴밀한 관계

2023년 5월 31일 기준, 총 172개국이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를 면제하거나 도착비자 또는 전자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화민국은 17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대만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 중 미국과 공식으로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며, 이는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방증한다. 1979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만관계법은 공식 수교 관계의 부재 속에서도 양국 협력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해 왔다. 미국은 대만관계법 및 6개 보장하에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2018년 대만여행법이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됐다. 직급과 무관하게 양국 정부 관계자의 방문을 독려하는 해당 법은 대만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강력한 지지를 확고하게 보여준다. 또한 2020년 미국 의회는 대만동맹국제보호강화법(타이베이법)을 통과시킨 후 법률로 제정하여 전 세계 대만의 외교 동맹과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 참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강조하며 대만 정부와의 교류를 독려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 하원은 2023년에 국방수권법에 서명하고 2024년에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대만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안보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양국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협력으로 성장했다.

중화민국과 교황청은 오랜 수교국으로 2023년 공식 수교 81주년을 기념했고, 종교의 자유와 인도적 구호에 대한 책무를 공유한다. 전쟁 종식 및 항구적 평화 증진을 향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에 따라 대만은 교황청과 협력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을 지원했다. 대만은 앞으로도 교황청 및 공동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의 박애, 자선 및 세계평화 증진 노력에 협력할 것이다.

한편 대만은 유럽연합 및 기타 유럽 국가들과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왔다. 대만과 유럽연합은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녹색에너지, 신기술,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 분야에서 또한 연례 ‘대만-유럽연합 인권협의회’를 통해 성평등, LGBTI 권리, 이주노동자 권리 등 공동의 우려 사항과 관심사에 대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0월 유럽의회는 최초로 유럽연합-대만 정치 관계 및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이어 2022년 9월에는 양안 정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만은 일본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대만’을 명시하여 양국 대표사무소를 개명했다. 이에 따라 주일타이베이경제문화 대표처는 대만일본관계협회로, 일본교류협회는 일본대만 교류협회로 개명되었다. 『일본 2020 외교청서』는 대만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분류하고, 일본은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확고히 옹호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주창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호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순환 구조를 창출했다. 2021년 일본은 42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기부하여 대만이 전반적으로 백신 보급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만은 마스크, 산소포화도 측정기, 의료용 산소 발생기 및 기타 의료 기기를 일본에 기부했다.

2022년 재개된 연례 경제통상회의 및 격년제 경제파트너십위원회는 양국 간 긴밀한 통상관계를 보여준다. 한편 양국은 2023년 5월 연례 해양회의를 개최하여 과학 연구 및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향후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2015년 11월 대만과 필리핀은 양국 어업인의 안보 수호를 위해 '어업 분야 법집행 협력증진 협정'을 체결했다.

차이 총통은 2016년 7월 19일 남중국해 쟁점과 관련하여 4대 원칙과 5대 행동준칙을 제시했다.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중국해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과 해양법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둘째, 다자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만이 참여하도록 한다. 셋째, 관련국은 역내 항해와 항공의 자유에 대한 수호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견을 뒤로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대만은 평등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모든 관련국과 협력하여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역내 자원을 공동으로 보존·개발해 나갈 것이다. 5대 행동준칙에는 어업권 수호, 다자간 협상 참여, 과학 협력 증진, 인도적 지원 및 구조 활동 수행, 해양법 전문가 육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남사군도의 타이핑다오를 남중국해의 인도적 지원 및 수송 기지로 조성 중이다. 내각 해양위원회 산하 해양경비대는 2000년 동사군도, 타이핑다오 주둔을 담당하게 된 이래 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국내외에서 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양경비대는 인접국의 상응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면적 0.51제곱킬로미터의 타이핑다오는 인간이 거주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타이핑다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규정된 도서의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협약에 따라 중화민국은 타이핑다오 영해, 인접 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상생 협력

대만은 국제사회의 모범적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질병 통제를 증진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테러, 초국가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 간 교류, 기업 투자 및 인적 교류 촉진을 통해 동맹국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평화, 자유, 민주주의 및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증진하고자 전 세계 파트너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15년에 출범한 ‘글로벌 협력과 대응 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GCTF’는 대만,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국들이 전 세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주관하여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수년간 GCTF는 공중 보건, 법 집행, 사이버 보안, 에너지 안보, 미디어 리터러시, 여성 역량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등 약 20개 주요 분야에서 수많은 국가의 역량 구축에 기여해 왔으며, 참여국 및 논의 과제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은 첨단 기술 기반 접촉자 추적 및 투명한 정보가 특징이며, 전 세계에 ‘대만 모델’로 널리 알려졌다. 이 같은 성공적 대응과 더불어 80개 이상의 국가에 마스크 및 기타 의료용품 기부를 통해 대만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자연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명 구호 및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강화로 널리

찬사받은 대만 모델은 현지 코로나19 최다 확진으로 인해 시험대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 백신 기부의 선순환에 기반한 사회 각계각층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만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지원을 발판 삼아 대만은 팬데믹을 억제하고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을 수호하기 위해 공중 보건에 대한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사회 변화, 경제 자유화 및 민주주의 혁신을 통해 대만에는 민간 부문을 위한 비옥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비정부기구(NGO)들이 활성화됐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올바른 거버넌스를 보장하고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NGO들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밀접하게 연계된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대만의 위상을 높여왔다. 대만 정부는 자국 NGO들과 국제사회 간 연계 증진을 위해 이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고 전반적인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 NGO의 현지 진출 노력을 지원하여,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번영을 보다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이베이에 있는 양안 간 기술 및 사무를 관리하는
해협교류기금회 (사진_친형하오)



양안관계

주요 정보

-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관계 4대 기초
- 자유로운 민주헌정체제 수호
-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상호 종속되지 않음
- 병합이나 주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음
- 중화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

1949년 대만으로 이전한 이후 정부는 대만 본섬, 평후군도, 진먼다오, 마주 열도 및 여러 부속 도서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해 왔으며, 중국 본토는 중국 당국의 관할 하에 있어 왔다. 1980년대 후반 대만에서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과의 민간 교류에 대한 많은 제한이 해제됐다. 오늘날 대만은 중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다.

1991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승인된 대중국 투자는 45,195건으로, 총 2,033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 2022년 양안 무역 규모는 2,05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6월, 대만의 준정부기구인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간의 정례 회담이 10년 만에 재개됐다. 2015년 8월까지 양국에서 교대로 11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어 23건의 공식 협정이 체결됐으며, 그 중 21건이 발효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양안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제도화를 목표로 2010년 6월 체결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이 있다.

평화와 안정

국내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양안관계와 관련된 외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20일 취임 및 2020년 재선 이후 차이잉원 총통은 기존 상황과 정치적 근거를 기반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양안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양안관계에서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대만 정부의

양안 무역 현황

총액

US\$ 2,051억 1천만

US\$ 1,240억 2천만

US\$ 187억 3천만

■ 수입
■ 수출

2002

2012

2022

출처_재정부 관무서

변함없는 입장이다. 이는 해당 지역과 세계에 대한 대만의 의지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평화, 번영 및 발전은 역내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이므로 양안 문제는 지역 평화와 연결된다. 대만은 계속해서 선의를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양안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수호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은 양안 교류에 정치적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대만에 지속적인 정치적 탄압 및 군사적 강압을 가해 왔다. 2019년 1월 2일 중국은 대만에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 도입을 제안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현상을 교란했다. 중국의 공세적인 정치 의제에 맞서 차이 총통은 2019년 3월 11일 국가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며, 현재 및 미래 세대가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제시했다. 한편 입법원은 ‘반침투법反滲透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 15일 발효됐다.

2022년에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이듬해에는 차이 총통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회동이 성사됐다. 이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위협, 경제적 강압 및 기타 희색지대 전술을 통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가중했다.

대만 정부는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하여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를 지속해서 개정해 왔다. 현재까지 가결된 개정안은 양안 간 정치 협정 감독 방법에 관한 규정과 미승인 중국 투자에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정부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거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람의 중국 여행 제한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의 제3자 투자를 통한 대만에서의 미승인 사업 활동 금지 규정을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자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이후 인도주의적 우려, 산업적 필요 및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됐으며, 현재는 가족 방문, 다국적 기업 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계약상 사업 의무 준수, 학술 교류 또는 학위 취득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만 정부는 국제적, 지역적 및 양안관계의 국면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차이 총통의 양안 정책의 원칙 및 방향에 따라 양안관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양안 교류 관리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와 안보 방어기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긍정적인 양안관계를 촉진하고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양안 교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일관된 접근 방식

대만 정부는 앞으로도 중화민국 헌법, 양안인민관계조례 및 국민의 뜻에 따라 양안관계 문제를 다룰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당국이 중화민국은 주권 독립국이며, 중화민국 국민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촉구한다. 차이 총통은 2021년 국경절 연설에서 양안관계에 대한 '4대 기조'를 제시했다. 즉 자유로운 민주헌정체제를 수호하고, 중화민국과 중국은 상호 종속되지 않으며, 병합이나 주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으며, 중화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대만 주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만이 지켜내고자 하는 최후의 보루를 상징한다.

2022년 10월 10일 국경절 연설에서 차이 총통은 국내외 자유 및 민주주의 수호 역량 강화를 위해 대만이 경제와

산업, 사회 안전망, 자유롭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국방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만은 중국이 차이 총통의 '평화, 평등, 민주주의 및 대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양안 국민의 안녕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긍정적인 양안관계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양안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인다면 대만은 평등과 존엄에 기반한 의미 있는 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 대만은 또한 팬데믹이 통제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면 양안 국민 간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교류가 점진적으로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만 정부는 자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일본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

주요 정보

대만은 2022년 기준 세계 17위의 상품 수출국이다.
 신남향정책에 따라 대만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남아시아 6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 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산업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만은 세계 17위의 상품
 수출입국이다. 또한 2022년 12월 기준 최대 외환보유국

산업 공급망을 아우르는 정밀 제조 허브의
 세계 최대 본거지인 대만 (사진: 친형하오)

중 하나로 부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화 32,756달러에 도달했다. 대만은 명목 GDP 기준으로 폴란드와 스위스에 근접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1인당 GDP는 바하마 및 대한민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무역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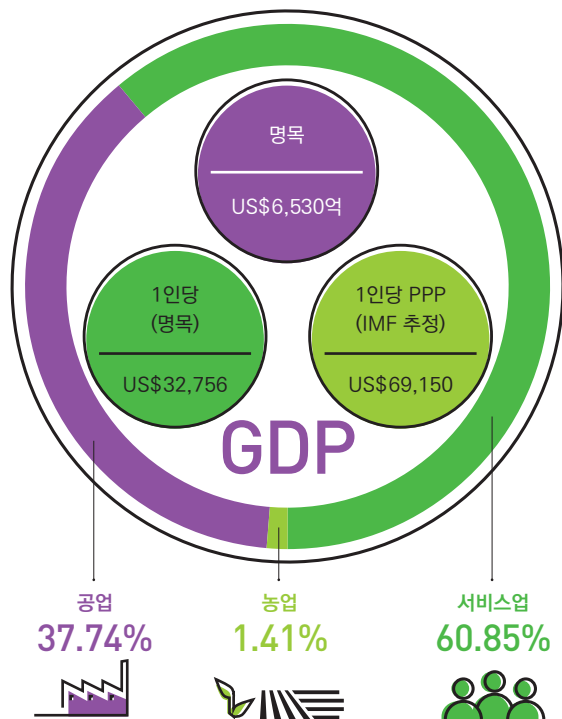
2021년 팬데믹이 완화에 따라 세계 경제 활동이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2022년에는 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전환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같은 해 하반기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연간 수출입 총액은 9.6퍼센트 증가한 미화 9,074억 달러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7.4퍼센트, 12.1퍼센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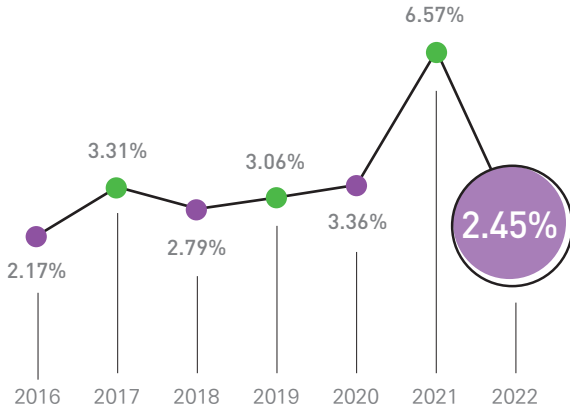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와 경영환경리스크인텔리전스BERI가 실시한 조사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에 대한 연례 조사에서 대만은 장기 성장 및 기술 개발 부문에서 해마다 높은 순위를 차지해 왔으며, 2023년에 발표된 결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66~67쪽, ‘글로벌 조사 순위’ 표 참조)

2013년 7월 대만은 OECD 회원국과는 최초로 뉴질랜드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싱가포르와도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동남아 무역 상대국과의 첫 번째 협정이다. 이러한

GDP 개요(2022년)





출처_행정원 주계총처

성과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블록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과 미국은 2022년 11월 ‘제3차 대만-미국 경제변영동반자대화’를 개최하고, 2023년 6월 ‘21세기 무역에 관한 대만-미국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에 따라 첫 협정을 체결했다. 대만은 2017년, 2018년 및 2020년에 파라과이, 에스와티니 및

벨리즈와 차례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정들은 3국과의 우호 증진과 경제, 투자, 기술 및 무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발 접근 방식

2016년 대만 정부는 혁신과 진보를 가속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개발 정책을 폈다. 이는 ‘5+2산업혁신계획5+2產業轉型計劃’으로 차세대 스마트 기계, 아시아 실리콘밸리, 바이오·제약, 녹색에너지, 국방, 신농업, 순환경제 등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이 됐다.

2020년에는 기존 정책을 토대로 2019년 출범한 ‘대만 투자를 위한 3대 주요 방안投資臺灣三大方案’과 연계하여 6대 핵심 전략 산업이 선정됐다. 정보 및 디지털, 사이버 보안, 정밀 의료, 국방 및 전략, 녹색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전략 비축 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대만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증진하고, 부문 혁신 및 진보를 보다 촉진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향후 30년 동안 국가 기반 시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기반시설개발계획前瞻基礎建設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무역 및 투자 개요(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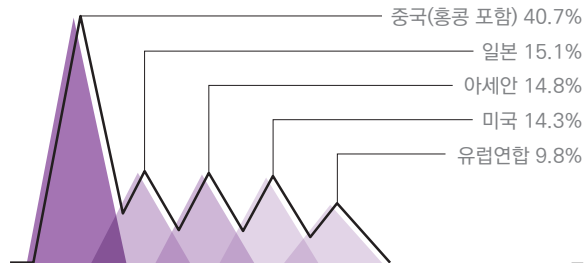
무역 총액: US\$9,074억

수출 US\$4,794억

수입 US\$4,280억

무역 수지: US\$514억 흑자

주요 수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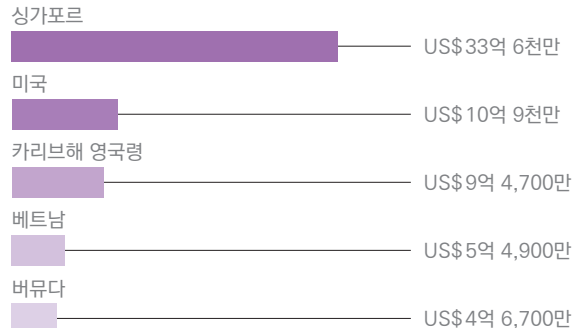
주요 수입국:

중국(홍콩 포함) 23.6%
 미국 15.7%
 아세안 14.2%
 일본 9.7%
 유럽연합 9.3%

외환 보유액: **US\$5,549**억(2022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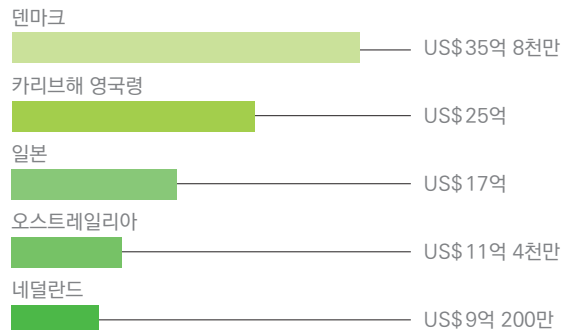
등록된 해외투자 유출: **US\$99억 6천만**

상위 5대 투자처:



등록된 해외투자 유입: **US\$133억**

상위 5대 투자원:



조사 주제(발행일)	순위	대상 국가 수	조사 기관
세계경쟁력연감(2023년 6월)	6	64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투자환경평가(2023년 1월)	14	50	경영환경리스크인텔리전스(BERI)
경제자유지수(2023년 2월)	4	184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계획에는 철도 개발, 디지털 기반 시설, 수생 환경, 식품 안전, 녹색에너지, 도시 및 농촌 개발, 출산율 및 보육 시설 증대, 인재 양성 및 고용 등 8개 부문이 포함된다.

대만 정부는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정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은 산업 구조 조정,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및 지역 성장 전략을 전면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과 동시에 녹색에너지 자원 사용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난항에 대응하기 위해 미화 1,250억 달러 예산 규모의 ‘팬데믹 이후의

경제·사회적 회복력 강화 및 국가 경제 성과 공유를 위한 특별법 疫後強化經濟與社會韌性及全民共享經濟成果特別條例’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며, 산업 부문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정부는 팬데믹 및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면서, 임금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만 경제를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주요 정보

대만은 세계 최대 ICT 제품 생산국 중 하나다.
IMD가 2023년 6월 출간한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대만은 64개국 중 경쟁력 순위 6위로 선정되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만’을 목표로 하는 ‘2030스마트대만 2030 智慧國家’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혁신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친환경 산업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가



대만 동부 화롄의 문화창의산업단지 내 ‘퓨처비전랩(Future Vision Lab)’에서 몰입형 전시를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
(사진_천메이펑)

발전의 핵심 동력인 만큼 위원회는 스타트업 양성, 국내 3대 과학단지 육성, 학술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의성을 제고하고 산업적 요구에 연구 초점을 맞추도록 다양한 조치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 첨단 기술 기업들의 성공은 주로 응용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의 아낌없는 재정 지원 덕분이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공업기술연구원, 국가실험연구원 및 정보산업연구소는 연구 활동, 민간 R&D 지원,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만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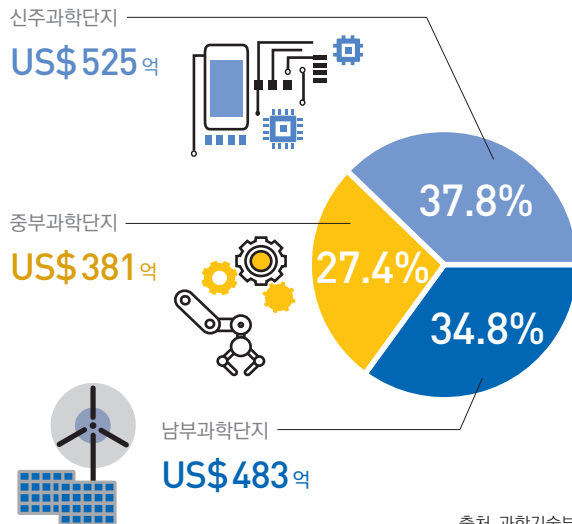
혁신 지원

기술 혁신 분야에서 공업기술연구원의 전문성은 놀라운 수상 성과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지난 15년 동안 해당 기관은 권위 있는 R&D 100 어워드 R&D 100 Awards에서 총 50개의 상을 받았으며, 2017년 이래 에디슨 어워드 Edison Awards에서 총 12개의 상을 받고, 2015년 이래 클래리베이트 Clarivate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 Top 100 Global Innovator에 총 7차례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기업 TSMC 및 UMC 등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 육성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들 기업은 세계를 선도하는 맞춤형 집적회로 IC 칩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국가실험연구원은 환경 기술, ICT, 바이오메디컬 기술, 과학기술 정책 등 4개 주요 분야를 관장하는 7개 국가연구센터를 운영하며, R&D 플랫폼 구축, 학술 연구 지원, 첨단 과학기술 진흥 및 첨단 기술

대만 3대 과학단지 입주 기업 매출(2022년)



출처_과학기술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슈퍼컴퓨터인 타이와니아(Taiwania)를 설치하여 국가의 과학 연구 및 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2022년 타이와니아는 6천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1,800만 시간 이상의 가중 서비스

시간을 기록했으며, 1,800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사용자들은 물리학, 화학, 수학, 대기과학, 공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9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여 혁신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보산업연구소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 제공을

6대 핵심 전략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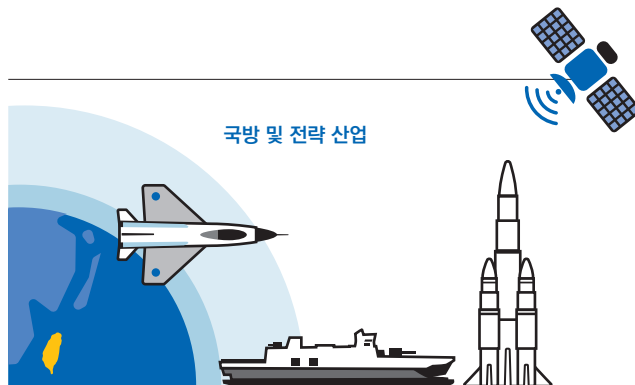
정보 및 디지털 산업



사이버 보안 산업



국방 및 전략 산업



정밀 의료 산업



녹색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전략 비축 산업



조사 주제(발행일)	순위(부문)	대상 국가 수	조사 기관
2019년 국가경쟁력보고서 (2019년 10월)	4 (혁신 역량)	141	세계경제포럼(WEF)
2023년 세계경쟁력연감 (2023년 6월)	8 (기술 기반 시설) 5 (과학 기반 시설)	64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통해 대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혁신적인 ICT 제품 및 응용 관련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 수립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ICT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50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해당 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했다.

대만의 기술 생태계는 아시아에서 입지 구축을 모색하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현지 벤처투자자,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술 개발자들은 최첨단 R&D 분야에서 방대한 협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혁신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히브로 부상 중인 대만테크아레나TTA는 전 세계 젊은 기업가들을 유치하고 있다. 타이베이와 타이난에 거점을 둔 TTA는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 및 기업을 연계하여 역동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TTA는 대만의 기술 스타트업을 대표하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위한 도약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수년간 노력을 통해 현재 대만의 과학단지들은 바이오 기술, 개인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집적회로, 나노 기술, 광전자공학, 정밀기계 및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

주요 정보

대만은 2014학년도부터 12년제 기본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148개의 종합대학,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은 정책 입안의 주요 요소로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15세 이상 대만 인구 중 전문대학이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지난 10년 동안 8.1퍼센트포인트 증가해 48.8퍼센트를 기록했다.

대만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대만의 교육제도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과 외 활동 (사진_팡치아산)

위해 2014년 기존의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
기본교육제도로 개편했다. 대만의 학생들은 매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의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수학, 정보학 및 물리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인재들은 대만의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국의 다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
정부는 12년제 기본교육제도에 하카어, 호를로어,
16개 원주민족의 방언 및 신주민들의 언어에 대한 필수
교육과정을 포함시켜 이와 같은 언어들의 전승, 부흥
및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가 인재 및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에는 ‘2030
이중언어정책^{2030雙語政策}’을 채택했다.

장학금 제도

외국인 유학생은 정부와 대학이 제공하는 장학금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장학금’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사 또는 석·박사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각국의 대만 대사관이나 대표부에
문의하거나, 대만 교육부 웹사이트([https://english.moe.gov.tw/
ip-24-1.html](https://english.moe.gov.tw/ip-24-1.html))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어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화어문장학금^{華語文獎學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전국 64개 대학
산하 중국어 학습센터에서 중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한편 대만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국제적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현지 중국어 학습센터 목록 및 학습 정보는 대만
교육부, Study in Taiwan(www.studyintaiwan.org) 및
대만화어교육자원센터 웹사이트([https://limit.edu.tw/lc/
school_list/](https://limit.edu.tw/lc/school_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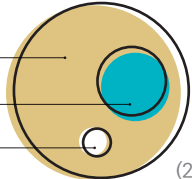
문해율(15세 이상): **99.2%** (2022년)

교육, 과학 및 문화 부문 지출: 중앙정부 예산의 **18.1%** (2023년)

고등교육기관 수: **148**개(136개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12개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 등록 학생 수:

총계 **114**만 명
석사 과정 **174,926**명
박사 과정 **28,672**명 (2022년)



대만의 종교 및 명절 전통 행사에
빠지지 않는 등불 (사진: 친형하오)



문화

주요 정보

대만은 '만다린 팝' 산업의 중심지다.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대 중국 유물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대만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문화로
유명하다. 국가의 역사 및 문화적 다양성을 선보이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대만박물관, 국립역사박물관, 국립
대만선사문화박물관, 국립대만문학박물관, 국립대만
미술관 등 전국에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또한 국립희극원
및 국립음악청, 국립타이중오페라극장, 국립가오슝

아트센터(웨이우잉), 대만희곡센터 등 공연장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수준 높은 문화시설들을 기반으로 대만은 아시아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했으며, 대만 국제예술제, 타이베이 예술제 등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대만의 전통 건축양식은 사찰, 관저 등 국가의 장엄한 유적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카페, 상점 및 기타 공공 이용 공간으로 재단장한 여러 유서 깊은 건축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대만은 다양한 형태의 중국 전통 예술, 공예 및 풍습을 다른 어느 곳보다 잘 보존하고 있다. 대만은 여전히 정체자(正體字)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서예 경연대회는 꾸준히 인기 있는 행사다.

불교, 유교 및 도교의 전통 교리는 사찰 행사와 문학 작품부터 시각 및 공연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잘 드러난다. 관광객은 대만에 거주하는 하카족, 호클로족 및 기타 원주민족의 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대만은 대만서원에서 운영하는 자원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와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한편 대만의 도시들은 연중 24시간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대도시로 번성하고 있다. 대만은 유수의 무용단들과 더불어 역동적인 음악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만다린 팝(만도팝)’, 즉 중국어 대중음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서 대만의 위상을 감안하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개관한 타이베이 및 가오슝 뮤직센터는 주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만의 TV와 영화 부문은 최근 몇 년 사이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디자이너 매장, 시장 및 전시회는 대만의 문화 및 창조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증명해 준다.

문학예술과 민속 축제부터 활기 넘치는 야시장까지, 대만의 전통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으며, 과거가 현재에 활력과 깊이를 더해주며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만은 수백 년 전통의 예술인 그림자 인형극 보존에 힘쓰고 있다.
(사진_친형하오)



2022년 56,000종의 신간 발행 (사진 친형하오)



대중매체

주요 정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3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대만은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대만 대중매체의 다양성은 많은 매체 수와 치열한 경쟁에서 드러난다. 대만은 언론 환경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국가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가 5월 3일 발표한 2023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대만은 전 세계 35위,

| 개요 |

라디오 방송국 수: **186**



지상파 방송국 수: **5**



위성방송 사업자 수: **90**

(218개 채널)



케이블 TV 사업자 수: **64**

(2023년 통계)



출처_통신방송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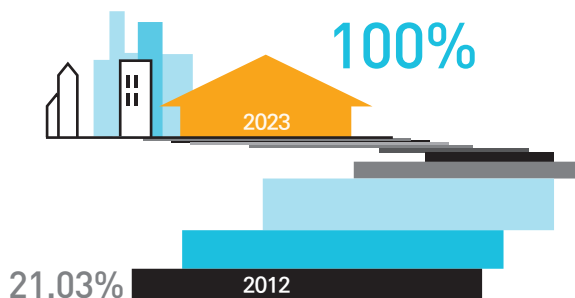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1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당 조사에서 대만은 대한민국(47위), 일본(68위), 홍콩(140위) 및 중국(175위)을 앞섰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및 덴마크는 차례대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3년 8월 기준 22개국 82개 대중매체 언론인 총 151명이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중매체가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 디지털 배포로 전환되고 있다. 3대 일간지를 포함한

잡지와 신문의 인쇄판은 디지털 버전에 밀려나는 추세다. ICT 분야에서 대만의 강점을 활용한 전자출판은 해당 산업은 물론 일반 도서 출판 산업의 발전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2022년 56,121종의 신간이 실물 발행됐다.

케이블 TV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청자의 시각적 경험이 대폭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디지털화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케이블 TV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 디지털 TV 가구 보급률 |



출처_통신방송위원회

관광

주요 정보

66개국 이상의 국민은 30일 또는 90일 동안
무비자로 대만을 방문할 수 있다.
대만은 24시간 다국어 여행 정보
핫라인(0800-011-765)을 운영 중이다.

독특하게 융합된 문화, 경이로운 자연경관, 다채로운
먹거리, 흥미진진한 도시의 삶, 발달한 관광
서비스 산업을 보유한 대만은 다양한 유형의 여행자에게
이상적인 목적지다. 대만은 66개국 이상의 국민에게
30일 또는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기 관광지인 부상 중인 대만 남부 타이난의
징자이자오 염전 (사진_핑치아산)

대만은 약 1,100킬로미터에 달하는 일반철도^{TRA} 외에도 서해안을 따라 350킬로미터를 달리는 고속철도^{THSR}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고속철을 이용하면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94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이들 두 도시와 더불어 대만 북부와 중부 대도시인 타오위안과 타이중에도 각각 최첨단 고속대중교통^{MRT}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길거리 간식부터 미술쟁 스타 식당의 요리까지 대만에는 모든 미각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음식 문화가 있다. (사진_림민슈안)



국제 무역박람회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는 전체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박람회를 연중 주최하고 있으며, 주요 장소로는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전시장, 난강 전시장, 대만 남부의 가오슝 전시센터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taiwantradeshows.com.tw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객을 위한 일반 정보

정부는 외국 여행객에게 대만에서의 여행, 생활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운영 중이다.

웹사이트/핫라인

언어

대만 관광청
www.taiwan.net.tw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스페인어, 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

여행 정보 핫라인
0800-011-765 (24시간)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민국
www.immigration.gov.tw

영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외국인을 위한 정보 안내
핫라인 0800-024-111

24시간-영어, 일본어, 중국어
평일 9:00~17:00-베트남어
평일 13:00~17:00-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주요 관광명소

북부

국립고궁박물관: www.npm.gov.tw
 타이베이 101: www.taipei-101.com.tw
 신베이시립잉거도자기박물관:
www.ceramics.ntpc.gov.tw
 국립중정기념관: www.cksmh.gov.tw
 룽산사: www.lungshan.org.tw
 쉼바국가공원: www.snp.gov.tw
 양밍산국가공원: www.ymsnp.gov.tw
 동베이자오·이란 해안국가풍경구: www.necoast-nsa.gov.tw
 북해안·관인산 국가풍경구: www.northguan-nsa.gov.tw

중부

르웨탄국가풍경구:
www.sunmoonlake.gov.tw
 구족문화촌: www.nine.com.tw
 삼산국가풍경구: www.trimt-nsa.gov.tw
 국립대만공예연구발전센터: www.ntcri.gov.tw
 루강진마을: www.lukang.gov.tw
 국립자연과학박물관: www.nmns.edu.tw
 위산국가공원: www.ysnp.gov.tw

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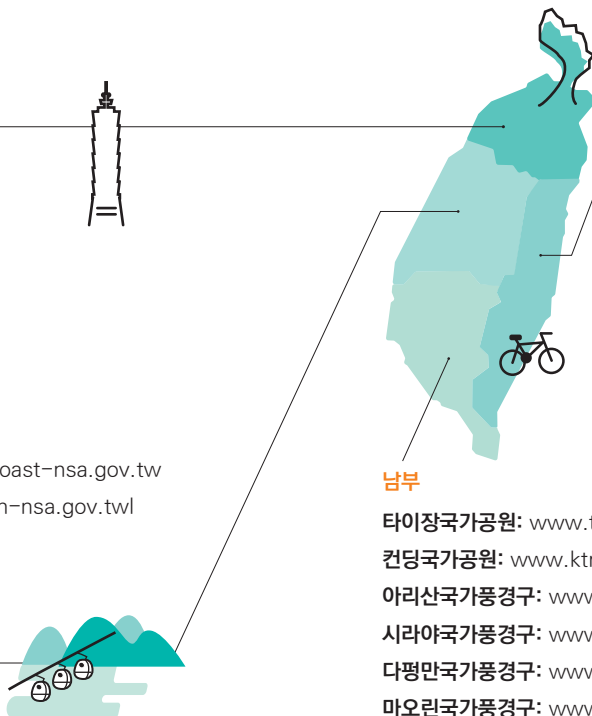
타이루거국가공원:
www.taroko.gov.tw
 대만삼림유락구:
recreation.forest.gov.tw
 동부해안국가풍경구:
www.eastcoast-nsa.gov.tw
 화동종국국가풍경구:
www.erv-nsa.gov.tw

남부

타이장국가공원: www.tjnp.gov.tw
 킨딩국가공원: www.ktnp.gov.tw
 아리산국가풍경구: www.ali-nsa.net
 시라야국가풍경구: www.siraya-nsa.gov.tw
 다평만국가풍경구: www.dbnsa.gov.tw
 마오린국가풍경구: www.maolin-nsa.gov.tw
 원자난해안국가풍경구: swcoast-nsa.travel

부속 도서

진먼국가공원: www.kmnp.gov.tw
 남평후해양국가공원: www.marine.gov.tw
 마주국가풍경구: www.matsu-nsa.gov.tw
 쉼다오 및 란위다오:
tour.taitung.gov.tw/ko/discover/offshore-islands



주요 축제 및 행사

월별 축제와 행사*

1월	제야축제
2월	대만등불축제**
3월	대만국제난전
4월	타이중마주국제관광문화제(종교 행사) 다평만해양축제
5월	평후해상불꽃축제
6월	동해안대지예술제 및 달빛·바다뮤직페스티벌

7월	대만국제열기구축제
8월	대만미식전
9월	르웨탄국제수영카니발
10월	대만자전거축제-대만KOM챌린지
11월	평후바닷길마라톤
12월	신베이크리스마스랜드

*자세한 내용은 대만 관광청 웹사이트(www.taiwantour.or.kr) 참조

**대만등불축제는 매년 다른 도시나 현에서 개최되며,
2024년에는 타이난에서 개최 예정



통화

신 대만 달러(NT\$ 또는 TWD)

환율: US\$1당 NT\$31.4(2023년 6월)



시간대

전국 동일 시간대, UTC+8시간(계절 조정 없음)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

주요 신용카드가 널리 통용되며 여행자 수표는

외환 취급 은행, 호텔 및 관광 상점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팁 문화

대만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관례가 아니지만 호텔과 레스토랑의 객실 요금 또는 식사에 10퍼센트의 봉사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전압

AC 110V/60Hz



비자 정보

외교부 영사국

전화: (+886)-2-2343-2888

웹사이트: www.boca.gov.tw

관세 규정

재정부 관무서

전화: (+886)-2-2550-5500 내선 2116

웹사이트: web.customs.gov.tw

